

결코 변하지 않는
세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다!



세아로지스 철송사업팀 차진국 팀장
세아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애정과 한결같은
마음가짐은 그와 세아 모두를 발전시킨다.



크리스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애정을 세아에 보내고 그에 못지않은 열정을
자신의 일에 쏟아내고 있는 세아로지스 차진국 팀장.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그의 열정은 세아로지스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된다.

2012년, 만족스러우셨나요?



Let's **Start** The Year
2013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최선의 행복은
일 년을 마무리할 때에 연초의 자신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 세아가족 여러분은
어떤 한해를 보내셨나요.
세아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나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었나요?
혹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비록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그 시간들이 쌓여
언젠가는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2012년을 돌아보며 모두가 행복을 느끼기를,
또 2013년을 기쁜 마음을 맞이하는 세아인이 되길 바랍니다.

Vol. 342

NOVEMBER·DECEMBER 2012

C o n t e n t s



FOCUS ON

- 02 Hot & Issue**
- 이운형 회장,
'언스트엔영 최고 기업가상' 수상
- 세아에샵,
'기업혁신대상' 수상
- 04 SeAH Special Report**
- 세아의 미래를 찾아 나선 채용 설명회
- 세아메탈 원주공장,
Pinion Shaft 전문 공장으로 도약
- 한국번디, 김해공장-서탄공장 건설
- 10 Open Your Team**
세아제강 창원공장 생산팀
- 16 SeAH Super Star**
세아로지스
철송사업팀 차진국 팀장

IMAGINE SeAH

- 20 프롤로그**
Technology
- 22 뿌리 깊은 나무**
창의적인 기술로 신분의 벽을 넘은 장영실
- 24 테마 인터뷰**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
- 26 테마 스토리**
내가 이 시대의 발명왕!
- 28 직장인 생활백서**
창조적 두뇌 깨우기
- 30 우리말 바로 쓰기**
좌충우돌 세철 씨의 직장어 사전

HARMONY OF SeAH

- 32 I ♥ SeAH**
- 세아와 함께하는 생활속 나눔 캠페인
세아가 펼치는 나눔의 미학
- 세아제강 창원공장
'나눔♥자선 바자회'
- 38 지구촌 별별사람**
한반도와 역사의 궤를 함께 한 나라, 중국
- 40 어느 멋진 순간**
한국번디 사우들의
2013년 나만의 다이어리 만들기
- 44 세아뉴스**
- 47 사우동정**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아 가 족
세아그룹 가족들을 위한 사보

<세아가족> 통권 342호 2012년 11+12월호

발행일 2012년 12월 14일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6970-0091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표지촬영 다부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운형 회장, ‘Ernst & Young 최고 기업가상’ 수상



이운형 회장이 세계 최고 권위의 글로벌 경영대상인 ‘엔스트앤영 최고 기업가상’을 수상했다. 11월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엔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엔스트앤영 최고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이운형 회장은 산업재(Industrial) 부문 기업가로 선정되어 시상대에 올랐다.

1986년 미국에서 출범한 ‘엔스트앤영 최고 기업가상’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엔스트앤영 한영’이 매년 끝없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가능성을 넘어 성공을 이뤄가는 모범적인 기업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남다른 비전으로 성공을 일궈낸 기업가들의 노력과 열정,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전 세계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 및 확산시키기 위한 이와같은 자리는 현재 50여 개 국가, 140여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운형 회장은 주요 심사 기준인 △기업가 정신 △재무성과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혁신성 △개인적 품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 여섯 가지 평가 항목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초로 강관제품을 수출하며 세아제강을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강관회사로 키우고, 창업세대부터 키워온 기업 가치관과 문화를 토대로 특히, 법정관리에 있

던 세아베스틸을 인수하여 우량 회사로 키워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세아베스틸이 국내 최고의 특수강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며 2012년 세아철강협회 정회원 가입은 물론, 철강산업 분야에서도 손꼽는 경영성과를 달성한 점이 크게 주목 받았다.

올해 시상식 심사위원단에는 위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안태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구택 포스코 고문,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회 각계 저명 인사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상직 지식경제부차관,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및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세아에샵,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세아에샵이 11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기업혁신대상’에서 국무총리상(금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이번 시상은 기업의 혁신 마인드 고취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사례 발굴을 위해 개최되어 왔다.

대기업 부문 금상을 수상한 세아에샵은 창립 이후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내 플럭스코어드와이어(Flux Cored Wire, 이하 FCW)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왔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전개해온 ‘STEP2012’ 혁신활동을 통해 2009년 대비 약 20% 매출을 향상시키고, 2011년 실적 기준 불량률 332PPM의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등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뒤따랐다.

최근 세아에샵은 2012년부터 혁신역량 강화와 문화정착을 위한 ‘LEAN 활동’을 운영 중에 있는데, LEAN 활동의 ‘LEAN’이란 ‘매우 얇은’ 혹은 ‘군살 없는’이란 의미로 재정적·자원적 관점으로 비추어 기름기를 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일컫는다.

LEAN 활동의 일환으로 세아에샵은 현재 CBS(Colfax Business System) 구축에 한창이다. 이는 2012년 1월 새로

운 합작투자 파트너가 된 Colfax 사의 경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세아에샵의 임직원들은 원가 절감과 재고 감소를 목적으로 가치흐름 지도인 VSM(Value Stream Mapping)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 VSM은 효율적인 KPI 관리를 기반으로 현장과 사무실 주요 업무의 유기적 연계와 순환구도를 형성하여, 품질관리능력, 업무 실천 및 생산 능력,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 세아에샵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고객 중심 사고로 지속적인 LEAN 경영혁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세아에샵이 2012년 하반기 수상에 이른 기업혁신대상은 경영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동 사례의 보급과 확산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99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시상제도이다.



세아의 미래를 찾아 나선 채용 설명회

하반기 정기 공채를 앞두고 세아홀딩스에서는 'Passion United SeAH'라는 콘셉트를 내걸고 열정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설명회에 나섰다. 11월 1일 전남대를 시작으로 수도권 5개, 지방 6개 등 전국 주요 대학 11개 곳을 돌며 세아의 열정을 표현한 제작물로 세아를 알리며 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서류전형 경쟁률 130:1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글: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성가람 대리

세아의 맞춤형 채용 설명회

하반기 채용 설명회는 세아그룹의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대학생들의 입장에 맞는 채용 설명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변화를 주었다. 첫째,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였다. 기존 8개 대학에서 시행하던 것에서 서강대, 전남대, 부경대를 추가하여 총 11개 대학을 찾았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세아라는 브랜드를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자 증대를 도모하였다. 추후 채용 설명회 대상 학교는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대학생 관점에서 제작한 채용 설명회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홍보물의 변화이다. 회사의 이야기만 전달하는 기존 프레젠테이션 내용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신규 프레젠테이션에는 이운형 회장 인사말부터 각 사 직원들의 회사소개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였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Passion United SeAH'라는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하는데 주력했다. 채용 홍보 포스터, 공고문 등을 세아의 열정을 표현한 통일된 콘셉트로 제작하여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기업품도 캐릭터를 살린 USB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홍보물을 받은 대학생들은 개인 블로그 및 취업카페에 사진과 함께 다양한 후기를 올리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이와 더불어, 세아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회공동복지모금회와 연계하여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채용 설명회 참석 인원당 3,000원을 기부하는 매칭기부를 도입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11개 대학에서 총 2,475명이 참석해 매칭기부금은 총 7,425,000원에 이르렀다. 채용 설명회 매칭기부는 기부활동 기회가 좀처럼 많지 않

은 대학생들에게 기부활동 동참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부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세아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추후 사회공헌활동을 채용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에는 채용 설명회 대상 학교 확대 및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채용상담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 세아그룹의 인지도 개선 및 보다 많은 우수 인재 확보를 도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아의 미래 만들어갈 인재들

한편, 12월 3일부터 세아제강을 시작으로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한 세아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부터 세아와 적합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를 다소 변경하였다.

기존 시행하던 오프라인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폐지된 직무적성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채용전형을 보다 강화하고, 서류심사는 각 사 인사담당 부서 및 채용 부서에서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하여 심사기간을 1주일 가량 늘렸다. 아울러 자기소개서를 부실하게 기술한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 특정 글자 수 이하로 기술한 지원자는 합격할 수 없도록 하였다.

1차 면접전형은 각 개인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평가 면접을 시행하는데, 이는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면접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지원자의 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면접전형은 기술면접(PT 또는 토론면접)과 임원인성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기술면접은 지원자의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사고력, 판단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인성면접은 기업문화, 인재상 등과 부합하여 세아에서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선발된 지원자는 최종적으로 신체검사 절차를 거친 후, 2013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11박 12일 동안 경기 가평에 소재한 교원비전센터에서 신입사원 기본과정 교육을 받고 세아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세아메탈 원주공장, Pinion Shaft 전문 공장으로 도약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세아메탈 원주공장은 Rack Bar 선삭가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1공장과 Rack Bar의 Rack Gear 가공과 Pinion Gear 가공 및 열처리를 전문으로하는 2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가을 2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1공장은 선삭가공 전문으로, 2공장은 기어가공 및 열처리 전문으로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제2공장 가동과 더불어 자동차 조향장치의 부품 중 Pinion Shaft 생산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원주공장은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글: 세아메탈 기술개발팀 이준기 팀장

조향장치의 핵심 부품 생산하는 원주공장

세아메탈에서 생산하는 조향부품 Rack Bar는 ISO/TS 16949 인증 획득으로 국내 최대 조향장치 생산 회사인 (주)만도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 회사는 물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 FORD, CRYSLER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번 Pinion Shaft 사업 개시로 조향장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2가지가 세아메탈 원주공장의 주력 생산부품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자동차에 있어 조향장치(Steering System)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순수 운전자의 힘만을 사용하는 매뉴얼 스티어링이다. 자동차가 개발된 초기부터 수동 조향장치는 사용되어 왔으나 작동 시 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모터 유압제어기술의 발달로 작은 힘으로 손쉽게 핸들을 돌릴 수 있는 동력장치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는데, 운전자의 힘 30%에 유압의 힘 70%를 더한 것이 유압식 Power Steering이다.

최근에는 센서 및 전기제어 기술의 발달과 자동차의 연비 향상, 경량화, 환경규제 등과 맞물려 전동식 동력 조향장치인 EPS(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의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바로 EPS용 Rack Bar 완제품이다.

전동식 동력 조향장치인 EPS는 모터 및 Torque Sensor,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어 경량화가 가능하다. 차량 탑재가 쉬워 공간 활용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만 모터를 회전시키므로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엔진의 동작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므로 연비 향상 및 환경 친화적 특징을 가지며, 소량의 동력으로 구동시킬 수 있어 전기차 및 승용차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다. 또한, 전자제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조향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향장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운전자가 직접 힘을 가하는 스티어링 휠과 힘을 전달하는 컬럼과 유니버설 조인트, 그리고 운전자가 가한 토크를 직선운동으로 바꾸는 스티어링 기어가 핵심이다. 이 핵심 중 하나인 스티어링 기어가 Rack Bar의 Rack Gear와 Pinion Shaft의 Pinion Gear이다.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스티어링 기어 방식을 랙

앤 피니언(Rack & Pinion)이라 하는데, 주로 승용차 및 소형 트럭 등에 사용된다. 랙 앤 피니언(Rack & Pinion) 방식에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방식과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으며, 스티어링 기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운전자가 핸들의 회전운동을 차축 좌우의 직선운동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운전대인 스티어링 휠과 피니언 샤프트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운동을 하고, 피니언 기어는 랙바의 랙기어와 맞물려 이를 직선운동으로 전환하는 구조이다.

최첨단 공법이 적용된 Pinion Shaft 생산개시

올해 11월 초도생산을 시작한 Pinion Shaft는 기존에 생산하던 Rack Bar와 같이 자동차 조향장치의 중요한 보안 부품으로 그 가공방식과 설비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던 제품이다. 그동안 세아메탈 원주공장에서 공급한 Rack Bar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과 납기,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비록 만도에서 생산하던 설비를 이관하여 생산하는 과정이지만, 불과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공정설계 및 Utility, 원소재 입고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원주공장 직원들의 근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Pinion Shaft 생산은 단조 가공이 끝난 소재가 입고되면 자체에서 세이퍼 가공설비로 Pinion Helical Gear 가공을 실시하고, 고주파 열처리, 템퍼링, 교정, 크랙검사 등의 공정을 거친 후 납품되는 공정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Pinion Shaft의 Pinion Gear 가공방법은 세이퍼, 호빙, 스카이빙, 단조 등의 가공방법이 있는데, 세아메탈 원주공장에서는 세이퍼 가공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호빙장비 도입으로 가공방법이 상이하여 수주받지 못했던 제품들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이다. 열처리 및 교정 시에 발생하는 크랙에 대한 비파괴검사도 기존의 자분탐상이라는 검사방식과 다른,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Gear부의 ECT검사 및 음파탐지 크랙검사 등 최첨단 공법을 적용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미래 도약위한 발판 마련한 한국번디

한국번디, 김해공장-서탄공장 건설

한국번디가 경남 김해에 신축공장을 준공하고 11월 28일 준공식 겸 확장이전 개업식을 가졌다. 또한 12월 말에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동가공 공장의 증축 및 확장 완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번디는 가전 분야에 특화된 김해공장과 더불어 자동차 가공 분야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될 서탄공장의 완공으로 국내 가전 및 자동차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글: 한국번디 인력개발팀 안광수 대리

新공장시대 여는 한국번디

한국번디가 경남 김해에 새로운 가공공장을 건설해 가동을 시작했다. 기존에 부지가 협소했던 창원공장을 정리하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김해공장은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위치, 대지면적 9,636.1㎡(2,918평), 연면적 9,784.77㎡(2,963평), 건축면적 4,951.4㎡(1,500평)로 사무동 3층, 공장동 2층과 휴게실, 식당, 기숙사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번디는 한국콜마 인수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과 주변 지역의 소규모 공장들을 단일 공장지로 집중하기 위한 공장 건설도 한창 추진 중이다.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서탄공장이 바로 그곳. 대지면적 8,823㎡(2,672평), 연면적 7,233㎡(2,188평), 건축면적 3,762㎡(1,139평)로 기존 사무동 1개와 공장동 1개를 리모델링하고, 신규 공장동 1개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탄공장은 기존 동가공 사업 외에 자동차용 쿨링 파이프 및 대관중 튜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을 확보할 예정으로, 연관 사업별로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기술 노하우 이전 등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여러 지역에 산재되었던 공장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관리 효율화 및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능력 증대로 신사업의 전진 기지가 될 김해공장

한국번디가 김해공장을 건설하게 된 것은 기존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던 가전용 제품의 공급량 증가로 생산 여건이 한계에 달하면서 신규공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창원공장은 2개로 분리되어 있어 각 공장별로 상이한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경우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좁은 공간에 많은 생산설비가 위치하여 공정 간 부조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LG전자 외에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전진 기지가 필요했고, 장기적으로도 자동차 부문 가공시장 진출을 위한 신사업 기지를 염두한 것이다.

한국번디는 김해공장 건설로 공장 일원화를 통한 관리 효율화와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사업을 위한 전진 기지 확보는 물론, 건설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생산설비와 공정, 물류 흐름을 갖추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보인 김해공장은 설계 및 건축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공장의 면모를 갖춘 최신식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관리 효율의 시너지를 높이는 서탄공장 건설

동가공 공장지로 활용 중이던 서탄공장은 공장 내 유휴 부지에 신사업 활용계획을 실행화하면서 평택 인근에 산재되어 있던 소규모 가공 공장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가공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콜마 인수로 2개 공장(화성, 서탄)이 추가되면서 통합 운영이 불가피했고, 평택 인근 당진에 있는 자동차 부품(헤드레스트 튜브) 조관 및 가공 공장이 지리적 여건상 발생하는 관리 Loss와 해안지역이라는 위치 때문에 생기는 녹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하고자 기존 서탄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유휴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서탄공장은 2003년 (주)영풍을 합병하면서 인수한 공장지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 및 식당 증축, 각종 복지시설 건축을 시공하여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동가공 공장 1개 동의 개보수를 통해 설비 및 공정 합리화를 추진하고 한국콜마 및 대관중 튜브 설비의 입주를 위해 공장 1개 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이번 서탄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여러 공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리 효율화 및 가공사업 간 기술교류를 통한 시너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세아제강 창원공장 생산팀

베테랑의 기술과 젊음의 열정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한다!

세아제강 창원공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2012년을 보냈다. SPP 강관 인수를 통해 전문 강관 생산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세이바인 패스(Sabine Pass) LNG 기지' 건설에 참여, 세계 시장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베테랑의 노련한 기술력과 젊은 인력들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2013년 멋진 비상을 준비 중인 세아제강 창원공장. 그 중심에 최상의 팀워크로 최고의 업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생산팀이 있다.

고급소재 전문 기지로 도약을 꿈꾸다!

1996년 문을 연 이후로 창원공장은 국내 최고의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기지로 성장해왔다. 대지면적 8만 9천㎡(2만 7천 평), 공장면적 2만 7천㎡(8천100평)인 세아제강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생산량과 기술력에서 국내 최고로 인정을 받아왔다.

ROLL FORMING TYPE, ROLL BENDING TYPE, HEAT-EXCHANGER TUBE 등 3개의 공장에서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물론, 발전소와 플랜트에 사용되는 티타늄 튜브까지 특수화된 강관들이 개발, 생산 중이다.

스테인리스 코일을 규정된 폭의 스킵으로 절단하여, 각각의 조관기에서 연속 롤포밍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외경 1/4인치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한 16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배관용 강관이 생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설비 및 각종 산업설비의 열교환기용 U-TUBE, 슈퍼 스테인리스 스틸 SR50A 튜브 제품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데 성공,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열교환기 소재로 공급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원재료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연속 생산체제와 엄격한 품질관리, 최신 설비를 통한 엄격한 검사 등으로 외경 12.7mm부터 50.8mm까지 고품질의 티타늄 튜브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도 창원공장 생산팀의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노력의 산물이다. 하지만 창원공장 생산팀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 대신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또 다른 도전을 택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구, 연구 성과에 대한 치밀한 검증, 새로운 제품의 생산라인을 셋업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창원공장은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순천공장과의 통합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을
최고의 품질로 생산해내는
전문 강관 생산기지로의 도약!

“올해 SPP 강관을 인수하면서 창원공장과 순천공장의 통합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소경에서 대구경까지 모든 사이즈의 강관 생산이 한 곳에서 가능해집니다. 창원공장과 순천공장의 설비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용도, 크기의 제품을 완벽하게 생산할 수 있는 종합 백화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순천공장과의 통합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을 최고의 품질로 생산해내는 전문 강관 생산기지로의 도약! 창원공장 생산팀의 배준덕 팀장과 팀원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 중이다.

베테랑의 기술력과 젊은 인재의 열정이 만나다!

롤벤더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김성상 전문직 팀장은 올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익힌 기술과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재산이다. 창원공장 생산팀에는 김성상 팀장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베테랑 직원들이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을 거치면서 쌓인 기술과 지식,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일할만도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배우

◀ 좌측부터 설은철 과장, 배준덕 생산팀장, 박기원 과장, 진종권 생산반 전문직 팀장, 최경호 생산2반 특수관 전문직 팀장, 김성상 생산2반 특수관 전문직 팀장, 김지호 사원, 김숙영 사원, 이승준 사원, 김근호 사원, 이승천 대리



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배움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이들은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관련 지식들이 쏟아져 나온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들려주는 대선배의 조언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이다.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죠. 워낙 대선배들이셔서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먼저 다가오셔서 이것저것 가르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으시고 늘 공부하시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됩니다.”

올해 입사한 이승준 사원은 베테랑 선배들을 보며 관련 지식과 기술은 물론, 일에 대한 자부심과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배우고 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배들 역시 자식뻔인 후배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무모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열정을 배우고 있다. 노련한 베테랑과 어설피지만 열정적인 새내기 사원들. 그리고 이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자청하는 중간급 직원들이 있기에 창원공장 생산팀은 오늘도 성장 중이다.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죠. 워낙 대선배들이셔서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먼저 다가오셔서 이것저것 가르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으시고 늘 공부하시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됩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비상하다!

‘제2의 석유’ 또는 ‘미래 100년간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셰일(Shale) 가스. 가스를 개발하고 운송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강관의 개발은 세아제강 창원공장이 세계 시장으로 비상하기 위한 든든한 날개가 되었다.

미국의 ‘세이바인 패스(Sabine Pass) LNG 기지’ 건설에 필요한 에너지 강관 3,800t을 수출하기로 한 것. 우선 2,049t의 물량을 2013년 4월까지 납기하기로 하고, 생산팀 직원 모두가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단일 오더 수주량으로 역대 최대인 이번 프로젝트는 SSP 강관 인수 이후 STS 후속 강관(최대 외경: 60" 최대 두께: 28.58T)이 포함된 대형 수출 프로젝트(LNG 배관)라는 점에서, STS 후속강관 시장 개척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셰일 가스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세아제강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세아제강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창원공장 생산팀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연말, 연시도 반납한 채, 창원공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유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노력이 있기에 창원공장의 겨울은 결코 춥지 않다.

MINI INTERVIEW

창원공장의 새로운 도약, 기대해주세요!

“세아제강의 제품이니깐 믿고 산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 한 마디를 듣기 위해 저와 팀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생산 과정에서 늘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도 ‘세아’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제품이 곧 우리의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은 창원공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순천공장과의 통합이 완료되면, 저희 생산팀이 해야 할 일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당장 ‘세이바인 패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를 발판으로 좀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우리 ‘세아제강’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창원공장 생산팀
배준덕 팀장





김지호 사원
세아제강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 강한 책임감으로 맡겨진 업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완료!

진중권 생산1반 전문직 팀장
창원공장에 대해 궁금한 점은 무조건 나에게! 창원공장 초창기 멤버로, 후배들에게 살 아있는 창원공장 백과사전!



배준덕 생산팀장
팀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따뜻한 카리스마! 배준덕 팀장의 애정이 듬뿍 담긴 잔소리는 팀원들을 춤추게 한다!

김숙영 사원
생산팀의 유일한 홍일점이자 막내! 열심히 인사하고 밝게 웃는 것만으로도 팀의 분위기를 환하게 해 주는 생산팀의 꽃!

김근호 사원
사무실의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특유의 성실함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숨은 일꾼!



이승천 대리
가장 작은 파이프를 만들지만, 실력과 열정만은 결코 작지 않은 생산팀의 마당쇠! 선배에게는 씩씩한 후배, 후배에게는 편안한 선배!

최경호 생산2반 특수관 전문직 팀장
성실과 근면으로 돌돌 뭉친 베테랑. 팀원들의 사소한 고민까지 세심하게 살피주는 형님 리더십!

설은철 과장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카리스마! 창원공장의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행동대장!

김성상 생산2반 특수관 전문직 팀장
올해 정년을 앞둔 30년 롤벤더 생산의 달인! 김성상 팀장의 칭찬 한마디면 직원들의 업무 능력 수직 상승!



이승준 사원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성실함과 선배들의 장점을 배우려는 열정까지 갖춘 100점 만점의 신입사원!

박기원 과장
늘 새로운 기술을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열정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천재 최초(最初)라는 이름을 수놓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열정과 도전정신만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인 오페라의 유령 팬텀, 그리고 열정과 애정으로 씬없이 나아가는 차진국 팀장.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노력형 천재의 모습으로 세아로지스에 최초의 바람을 일으키는 차진국 팀장. 앞으로도 그가 최초의 무언가를 세아로지스의 역사에 새겨갈 모습이 기대된다.

세아로지스 철송사업팀 팀장

차진국

세아로지스의 흐름을 손안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요즘, 물류시장에도 녹색물류(Green Logistics) 바람이 불고 있다. 녹색물류란 물류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물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환경 친화적인 물류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아로지스도 전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팀을 구성했으니, 바로 차진국 팀장이 맡고 있는 철송사업팀이다.

차진국 팀장은 1989년 세아로지스의 본사 영업팀으로 입사해 부산지점, 본사 경영관리팀 등 여러 부서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고, 현재는 철송사업팀의 팀장으로서 세아로지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철송사업팀은 대량 물동량과 CO₂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철도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그룹 내 화물 운송뿐 아니라 한국제지, 글로벌비스 등의 화주와 계약을 맺고 외부화물 운송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철송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프로세스를 정립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세아로지스의 비전인 '도전 2056'에 맞춰 2020년까지 매출액 5천억, 외부화물 60% 이상 달성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는 내부화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화물의 운송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차 팀장은 "저희만의 확실한 프로세스를 제공해 외부화물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꾸준히 자생력을 키워 2020년에는 국내 물류기업 중 탑 10 안에 세아로지스가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며 포부를 밝힌다.

차진국 팀장이 맡고 있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세아로지스는 30주년을 맞이해 컨설팅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비전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때 세운 비전이 앞서 말한 '도전 2056'이며, 21가지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한 경영혁신팀이 구성됐다. 바로 이 경영혁신팀을 차 팀장이 맡아 세아로지스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부산물류항에 위치한 삼화창고를 인수해 관리하며 적자에 있던 창고를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고, 11월 부산영업팀이라는 이름으로 세아로지스에 합병했다. 부산영업팀을 통해 운송뿐 아니라 보관, 하역, 통관 서비스를 갖춰 외부화물 화주들에게 통합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The PHANTOM of the OPERA



일에 대한 애정, 도전에 대한 열정

현재 3개 팀을 맡고 있는 차 팀장. 주변에서는 힘들지 않느냐며 걱정하지만, 정작 그는 재밌어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최초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크죠. 또 최초라는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계속 남는 것이기에 책임감도 커지고, 열정도 남듭니다.”

물류회사에 컨설팅을 도입해 비전을 설립한 것, 경영혁신을 도입한 것, 철송사업을 시작한 것 등 차 팀장이 행한 일들은 세아로지스에서 선례가 없던 일이라 선임자의 조언이나 의견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그는 외부에서 자료를 찾아 스스로 공부하면서 업무를 진행했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더 큰 경험과 실력으로 쌓였기에 그는 후배에게도 선배의 노하우를 그대로 배우기보다는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가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푸는 것. 그래야 다음 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며, 일에 더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끔 직원들에게 이벤트를 할 때가 있단다. 하루는 추운 날 따뜻한 어묵 국물 먹으면서 출근하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농담을 흘려듣지 않고, 다음 날 아침 팀원 몇 명과 함께 회사 1층에 어묵 국물을 끓여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가끔 깜짝 이벤트를 하면 분위기가 매우 좋아져요. 직원들도 신이 나서 그날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무엇이든지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차진국 팀장. 현재 맡고 있는 ‘도전 2056’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사가 물류기업의 탑 10에 들어가는 것에 일조하고 싶다는 그는 오늘도 세아로지스에 최초라는 새로운 한 획을 긋기 위해 뜨겁게 도전하고 있다.

profile

이름 차진국

좋아하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무엇이든지 도전한다)

싫어하는 것 고정관념(그대로 답습하는 행동)

좌우명 최고보다는 최초가 되자(최고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최초는 변하지 않는다).

오페라의 유령 팬텀과 차진국 팀장의 님은꼴 찾기



01 **열정** 팬텀의 천부적인 음악성과 열정은 남다르다. 차진국 팀장 또한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렇다.

02 **목표를 향한 도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그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03 **애정** 팬텀은 크리스틴에게 첫눈에 반해 모든 사랑을 쏟아 붓는다. 차진국 팀장 또한 마찬가지다. 일에 대한 사랑, 세아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04 **끈기**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법, 또한 성공으로 이끄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차진국 팀장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

05 **천재성** 비록 훗찬 외모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살아온 팬텀이지만 음악적인 감각은 천재라고 불릴 만큼 뛰어났다. 차진국 팀장 또한 세아로지스에서 최초로 실행하는 것이 많은 만큼, 가히 천재라고 불릴 만하다. 하지만 이들의 천재성은 단순히 타고난 것보다 열정과 끈기, 애정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



사람을 위한

세아의 기술

최고급 재료,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최상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재료와 장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최고의 제품을 위해 준비된 재료와
장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아인들도 시대에 맞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 된다면 머지않아 죽은 기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사람을 위한 기술,
이것이 바로 세아가 원하는 진정한 기술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그 미래는 밝아집니다.



창의적인 기술로 **신분**의 벽을 넘은 장영실

혹시 만 원짜리 지폐의 뒷면을 눈여겨보신 일이 있는지... 동근 테두리 안에 작은 테두리 2개가 대각으로 배치된 도안, 바로 장영실이 만든 혼천의입니다. 시간과 해·달·별·자리의 움직임을, 그리고 동서남북 방위를 관측하는 이 기구는 천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시대(세종 15년·1433)에 우리 과학기술이 이룩한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글: 문학기 조대현

창의적인 기술



천민으로 태어나 관가의 노비로

반상의 차별이 심한 조선시대, '장영실'은 천민 중에서도 천민인 관기(관가에 소속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은 신분인지라 장영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천대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살 때 동래현(지금의 부산)의 노비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창의적 기술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관가의 노비가 된 그는 대장간에서 호미, 삽, 가위, 칼 같은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10대 소년시절 그가 특히 재능을 보인 것은 무엇이든지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손재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기구를 쓰기 편하도록 개량하는 재주 또한 남달랐습니다. 모두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온 기술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헌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해인가 동래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어 논밭의 곡식이 바삭바삭 타들어갔습니다. 생각다 못한 헌감은 장영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고을 백성이 모두 굶어죽게 생겼다.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영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수레를 만들어 개천의 물을 퍼 올리면 될 줄 아옵
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오로지 하늘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던 시대에 물레방아의 원리를 이용하여 낮은 곳의 물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로 하여 그의 이름은 인근 고을은 물론 멀리 한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로 조정 관리가 되다

그럴 즈음에 세종대왕과 같은 명군을 만나게 된 것은 장영실 개인에게는 행운이요, 우리나라에는 기술문명이 한 단계 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위 초부터 훈민정음 창제에 여념이 없던 세종은 또 한 가지 도모하는 숙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옛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나라에서 4계절 날씨의 변화와 물 관리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에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들어온 역법(曆法)에 따라 해와 달이 가고 날짜가 흐르는 것을 헤아렸을 뿐, 그것을 일반 백성에게 알려 실제로 농사에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틈날 때마다 신하들에게 기술자를 천거하라는 명을 내렸지만 사농공상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에서 기술 지망생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진작부터 장영실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워낙 천한 노비 신분이라 감히 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세종은 역시 명군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인재를 찾는데 그깟 신문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어서 그 자를 노비에서 풀어주고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오.”

이리하여 장영실은 줄지에 종5품 관리가 되어 한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천문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

조정의 관리가 된 장영실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중국의 역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9년 만에 동서남북 방위와 별자리를 관측하는 ‘간의(1433)’를 발명하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혼천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와 발명의 결실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화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해시계의 일종인 '양부일구(1434)'였습니다. 오목하게 파인 구리 용기 안에 자·축·인·묘...등 12시간을 표시하고, 해 그림자로 시간을 알게 한 이 기구는 지금의 광화문 광장 부근과 종묘 앞에 세워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이나 밤에도 시간을 알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자각루(1434)'였습니다. 향아리처럼 생긴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밑에 작은 구멍을 뚫어, 거기서 나온 물이 아래 작은 통에 가득 차면 넘치는 물의 힘으로 수레바퀴를 돌려 종을 울리게 한 이 기구는 일종의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종은 새벽 4시와 밤 10시에 울렸고, 그러면 관리인이 큰 북을 쳐 장안에 시각을 알리고, 그에 따라 도성의 4대문이 열리고 닫혔으니 실상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에도 시간관념이 싹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 발명품을 창안해 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은 ‘측우기(1441)’였습니다. 깊이 41cm, 지름 16cm의 원통형 용기에 빗물을 받아 자로 잰 뒤, 일정 지역의 땅 넓이를 곱해 강우량을 산출하는 이 방법도 언뜻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보다 과학이 발달했던 유럽의 카스텔리 우량계보다 200년이나 앞섰으니 장영실의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났던가를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지배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학적 창의력을 길러주고, 산업 일선에서 땀 흘리는 기술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뛰어난 기술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장영실에게서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바로 사람입니다!

메이저리그에는 '동료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팀의 타율과 방어율에 따라 나의 성과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다. 세아홀딩스는 이처럼 동료효과를 발휘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 세아그룹이 긍정적 상승을 이루는 보완관계가 되고,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김진규 대표를 만나 세아홀딩스의 특별한 기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아홀딩스의 특별한 기술, 그 바탕은 사람

기술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라 정의한다. 세아홀딩스만의 특별한 기술은 세아홀딩스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실력과 관련된 것이고, 그 바탕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성실하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창조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력을 갖추고 발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결국 그것은 세아인들의 가슴 속에 있으며, 목표를 매번 새로이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개인의 노력이 곧 세아홀딩스의 기술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김진규 대표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세아홀딩스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멘토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세아홀딩스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가치 중 하나인 실력, 즉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사에서의 지원 이전에 직원들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곧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뜻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세아가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문가를 꿈꾼다

김진규 대표는 세아홀딩스가 이루어야 할 기술적인 발전 방향으로 지주회사의 특성을 꼽았다. 세아라는 태두리 안에서 작은 회사는 크게 키우고, 모든 이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모든 계열사를 아우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세아그룹의 특성은 전문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세아홀딩스의 전문성 있는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기 위해 홀딩스의 전 가족은 그보다 한발 앞선 고민과 발전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2012년은 세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시장이나 경제상황의 불투명성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맞은 한해이다. 그러나 김진규 대표는 건위수명(見危致命)을 강조하며 "위기관 것은 목숨을 다할 각오로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고, 이는 곧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도시가스사업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결단을 내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더 큰 힘을 쏟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길이었음을 밝혔다.

더 나은 미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아

새로운 통합사옥 입주로 모든 계열사들이 처음으로 한 건물에 모여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입사 후 30여 년, 세아의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김 대표는 통합사옥 입주가 단순히 한곳에 모이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믿는다. 새로운 환경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 더 큰 자부심으로 세아가족의 가슴에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50년을 함께해 온 세아가 향후 50년은 물론, 그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그의 마음이 모든 세아가족의 가슴 속에 전달되길 기대한다.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



내가 이 시대의 발명왕!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한 것이 있다. 바로 '내가 무엇이든 발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만들어야지'하는 것. 세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봤다. 과연 세아인들은 어떤 재치 있는 대답을 내놓았을까. 그리고 그런 답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아인들이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자.

말으면 행복해지는 방향제

행복은 늘 곁에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늘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한국번디 연구3팀 이재승〉

성애까지 않는 유리

온도차에 의한 성애로 인한 불편함이 많은
데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유리를 개발 한다
면 획기적인 발명품을 집니다.

〈세아M&S 영업팀 조성각과장〉

신약 개발(치매 치료제)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병 치
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 삶의 모든 기억들이
한 순간에 없어진다면 이 세상 그 어떤 행복
보다도 무섭고 가혹하다고 사론되기 때문에 미래
에는 알츠하이머 기타 질병 때문에 생명이 위협
받는 질병의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어야겠지
만 저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세아에샵 국내영업팀 이호진〉



GREAT
IDEA!!

트랜스포머에서처럼 나만의 뱀뱀비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셨나요? 트랜스포머에서처럼
나만의 뱀뱀비를 만들어 지구를 지키는데 앞장서겠
습니다. ㅎㅎ 아리따운 메카닉스와 같은 그녀도 저에
게 오지 않을까요? 으흠~

〈한국번디 연구2팀 이영무〉



자동 마스터키

자기와 관련된 모든 키(자동차, 집, 사무실 서랍 등)
를 하나로 등록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세아 M&S 영업팀 이민영 대리〉

세계 모든 언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기계

communication 부재로 벌어지는 많은 분쟁과 반목을 없앨 수 있고,
영어권 중심의 세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학과 과학, 의학, 그리고 예술
(영화,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가 더욱 그 역량을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어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마지
막으로 총알 없는 전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세아의 모든 사람들이 어
학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을 맘껏 보여줄 것입니다.

〈세아 M&S 영업팀 남상욱 팀장〉

순간이동 정류장

전차역이나 버스정류장에 순간이동이 되는 기
계가 있고 대중교통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가
고 싶은 역을 누르면 그 정류장(역)에 바로
도착하는 순간이동 정류장(역) 정말 꼭 발
명하면 좋겠어요!

〈세아 M&S 영업팀 정성희〉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치~!!!!

남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기의 발명품
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번디 연구3팀 박현철〉

어디로든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는 핸드폰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순식간에 그 사람의
곁으로 갈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하여 해외까지 전송된
다면 부담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
당일치기 그리스 지중해, 상상만해도 즐겁다!!ㅋ

〈세아베스텔 서울영업팀 김일용〉

INNOVATION



창조적 두뇌

깨우기

최근 어느 설문조사의 기사에 게재된 내용이다.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까닭이 가족과 여가생활을 보내는데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일 자체가 흥미 있거나 재미있다는 답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60% 이상의 응답자가 어쩔 수 없어서거나 습관적으로 일하고 있기에 일 자체가 힘들고 따분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직장생활을 표현해달라는 요청에는 ‘스트레스, 무료함, 전쟁터’ 심지어는 ‘지옥’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주말에는 희망대로 가족과의 놀이시간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니 문제다. 주말이 되면 피곤과 스트레스에 찌들어 누울 곳만 찾게 된다는 것이다. 주 5일의 근무시간이 주 2일을 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하는 재미없는 시간이라면 어림잡아 우리 인생의 7분의 5가 따분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으로 채워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글: 자기계발클리닉 이숙영 대표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창의성 하면 우리는 보통 기존에 없던 것을 반짝 생각해낸 것, 새로 떠올린 것을 창의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기를 통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 고도의 응용력, 적응력이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다양한 창의적 발상을 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유연한 사고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고정관념이다. 어떤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 두 가지를 소개해볼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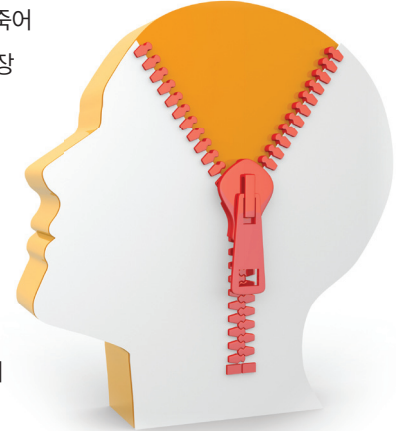
첫 번째 방법, 다음 단어의 빈 칸을 자유롭게 채워서 문장을 완성해보라.

남자는(), 여자는(), 직장인은()
당신은 어떤 문장으로 채웠는가?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죽 적은 후, 반대로 뒤집어서 반문해보는 연습이다. 예를 들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적었다면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건가?’, 여자는 ‘다소곳한 맛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었다면 ‘여자는 꼭 다소곳해야 하나? 당당한 여자가 더 멋있지 않을까?’, 직장인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었다면 ‘직장인은 월급만 받고 일하면 되지 꼭 책임감까지 있어야 하나?’ 이렇게 반문해보라는 것이다. 이런 훈련은 마음을 유연하게 해줘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창의적 발상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방법,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당위의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

“꼭, 너무, 절대로, 죽어도, 결코, 반드시, 항상, 당연히~해야지…”와 같은 단어들인데,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보자.

“너는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된다”, “그 놈과 결혼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반드시 이번 시험에는 합격해야 된다”, “직장인은 항상 깔끔해야 한다”, “학생이 머리 짧게 자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일을 더 하고 싶지 않게 된다. 또한, 창조적 두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창조성이 언제 잘 발휘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버드대 사회심리학자 어마빌레이(Amabile)는 창조성을 잘 발휘하기 위한 3요소로 1)지식과 경험, 2)창조적 사고, 3)열정(내적 동기)을 꼽는다.



첫째, 창조성을 잘 발휘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식이란 책이나 수업을 통해 배운 학문이나 오랜 기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는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 오래 종사하면서 스스로 배우거나 터득한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둘째, 창조성을 잘 발휘하려면 자신의 사고 틀을 뛰어넘는 남다른 사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현금 자동지급기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시티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을 위한 아이디어를 냈다. 고객들이 현금 인출을 위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현금 자동지급기’의 설치를 건의한 것이다. 은행의 경영자들은 철없는 이 직원의 건의를 반대했다. “입금을 빠르게 하는 기계라면 몰라도, 출금을 빠르게 하는 기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이 빨리 빠져나가 예금액이 줄어들텐데, 도무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야, 뭐야?” 그러나 현금 자동지급기의 도입을 건의한 직원의 생각은 달랐다. 고객은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입금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직원의 생각은 옳았다. 현금 자동지급기의 도입은 시티은행의 예금액을 단기간에 3배나 올려주었고, 창구의 인원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셋째, 창조성을 잘 발휘하려면 내적 동기, 즉 일에 대한 열정이 필수적이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인데,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한다. 행동하는 자체가 즐겁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서 하는 행동이 내적 동기로 인한 행동이라면, 돈이나 명성과 같은 외적 보상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은 외적 동기다. 예를 들어, 어떤 화가가 그림 그리는 활동 자체가 즐겁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면 거기에는 내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면 그는 외적 동기로 인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달리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내적 동기’가 강한 특징이 있다.

창조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평상시 유연성 훈련을 하고, 창조성의 3요소가 수렴되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

좌충우돌 세철씨의 직장어사전

"구루마 좀 가지고 와", "물 담아놔야 되는데, 어디 큰 다라 없어?", "저 빠게스 안에 넣어놔" 위의 말들 중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중장년층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구루마, 다라, 빠게스 등이 바로 잘못 사용된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일상에서 사용하다보니 쉬이 고쳐지지 않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잘못인줄 알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겠죠. 잘못된 표현, 이번 만큼은 확실히 고쳐보아요~



조화비림

초록빛 들판에는 여러 종류의 꽃이
각자의 색과 향으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성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색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한다면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세아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이것이 세아를 더욱 아름다운 조직으로 만들고,
더 높은 곳에서 빛날 수 있게 합니다.



세아와 함께하는 생활 속 나눔 캠페인
세아가 펼치는 나눔의 미학

2011년에도 어김없이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 본사 사무실 곳곳에 모금함이 비치되었다. 커피값과 점심값을 아끼는 만큼 모금함에 차곡차곡 쌓이는 따뜻한 마음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는 소식이다.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송준걸 대리



2011년 연말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 본사 사무실 곳곳에 모금함이 비치되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0주에 걸쳐 진행이 되었다. 캠페인의 취지는 우리가 평소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줄여 현실적이고 자유롭게 기부를 하자는 것

이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 출출할 때 먹는 간식, 애연가들의 담배 등 하루 본인이 쓰는 지출액을 생각해보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과감히 지출 금액을 줄여 그 차액만큼 기부를 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업무 도중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탕비실과 각종 문서 출력을 위해 드나드는 복합기 옆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종이컵이나 비품을 쓸 때 일정 금액을 모금함에 기부하여 생활 속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급된 ‘개인 나눔카드’는 기부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는데, 본인이 점심값, 커피값, 간식값 등에 쓰는 1주일 소비액을 적어보고 목표 소비액을 정한 후 차액만큼 목표 나눔 금액을 적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주~10주간 목표달성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체계적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이가 사우들이 각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기부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 한해 병뚜껑 저금통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모든 따뜻한 마음이 절약과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었으며, 성취감과 함께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했다.

또한 올해에는 YTN이 세아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을 취재하였는데, 세아계장 직원들이 커피 한 잔,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종이컵을 쓸 때 마다 모금함에 쌓이는 따뜻한 마음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 스스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개별 인터뷰도 노출됐다. 이 영상은 연말 YTN에 주기적으로 방영이 되어 세아와 함께하는 생활 속 나눔 캠페인이 시청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 캠페인 영상으로 세아가족들은 자부심을 갖게 되어 기분 좋게 하루 업무를 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이처럼 세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의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나눔을 통해 느끼는 보람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황성윤**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작은 나눔을 체험하면서 삶의 의미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도 행복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정성스런 손 편지에 너무나 감동했던 옛 추억을 떠올려 보면 일상 속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눔과 기부 또한 이와 같습니다. 기부를 통한 나눔의 행복 역시 미래 먼 시점의 언젠가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기부계획을 세우고 나날이 실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점심식사비,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 한 잔 값을 모아 기부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십만 원 남짓의 금액을 모을 수 있었고 뿌듯한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 기부함에 모금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의 머뭇거림 없이 흔쾌히 기부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나의 사소한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값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보람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기부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세아제강 생산기획팀 **권병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지난 5개월간 업무와 회사생활에 적응하느라 다른 곳에 신경 쓸 틈도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사무실 복사기 옆에 못 보던 모금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생일 때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곤 했지만, 직장인이 된 지금은 제 삶에 집중하기에만 바빠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복사기 옆에 놓여있던 모금함을 보고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는, 변해버린 제 마음이 부끄러워 얼마의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제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도착하고 보니 모금함의 목적이 나눔 카드작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계획하여 모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얼른 나름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동기들과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커피가 한 잔에 오천 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주일에 두 번만 커피를 안마셔도 일주일에 만 원, 10주면 십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획에 맞추어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회가 없다는 변명을 하며 그저 먹고 살기에만 매진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은 그런 저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생에는 서두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러한 나눔도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나들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겨울이 더욱 매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플 정도로 시린 겨울날, 적은 금액이지만 이웃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따뜻한 나눔 활동

창원공장 '나눔♥자선 바자회'

세아제강 창원공장의 '세아름 봉사회'는 지역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한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자 2009년 8월 1일 발족한 봉사단체로서 세아제강 창원공장 사원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장애우 보호기관인 '소망원'에서 시행하는 노력봉사와 보육기관인 '동보원'을 위한 물품기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그리고 이런 행사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 행사 등을 하고 있다.

글: 세아제강 창원 업무지원팀 이인호 대리



세아인의 따뜻함을 느끼다

'세아름 봉사회'는 2012년 5월 기존 봉사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원공장 '나눔♥자선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자선 바자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 방법 및 수익금 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선 바자회를 경매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판매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미판매 물품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심사숙고(?) 끝에 기증품별 가격을 책정하여 정찰가 판매를하기로 결정하였고, 미판매 물품은 별도 관리하여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자선 바자회를 진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원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는 것이었다. 이에 사원들에게 물품 기증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서 180여 권을 비롯하여 의류 40여 벌, 가전 20여 개, 기타 완구, 잡화, 스포츠 용품 등 260여 개의 물품이 모아졌고 물품 상태를 감안, 온라인 가격 조화를 통하여 각 품목별 가격이 책정되었다.

행사 기획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기증품의 수량이었으나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런 걱정거리들은 기우가 되어버렸다. 행사시간은 11월 16일 오후 5시부터였지만 사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사당일 정오부터 사내 식당에 물품을 진열하였다. 지

갑을 꺼내 맘에 드는 물품을 구입하려는 성격 급한(?) 사우들도 있었고, 판매예약을 외치는 사우들도 있어서 본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본 행사 시작시간인 오후 5시가 되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행사 전 미리 '찜'해 놓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 것이다. 아쉽게도 늦게 도착한 사우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여사우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발길을 돌리는 사우들을 위해 돌발 이벤트를 진행한 것. 모금함에 모금을 하면 기념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홍보하기 시작했고, 사우들은 하나 둘 모금함에 성금을 넣었다. 바자회장 한쪽에서는 집마다 전화를 하는 사우들이 보이기도 했는데, '집에 필요한 거 없나?', 'ㅇㅇ는 값이 얼마인데 사가지고 갈까?' 등의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날

행사에서 특이했던 점은 거스름돈을 챙겨가려고 기다리는 사우들이 없었다는 것. 거스름돈은 그대로 기부금이 되었다.

인기상품이 모두 판매되고 비인기(?) 상품이 남았을 무렵 VIP고객들이 등장했다. 바로 공장장과 사무직 팀장님들이었다. 물건을 둘러 보고나서 판매가가 높은 물품들을 구입하며 역시 VIP다운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우들의 시골벽적인 리액션에 모금함으로 한번 더 손길을 보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창원공장의 첫 번째 바자회는 이렇게 끝이 났다. 12월 중에는 '아름다운 가게'와 연락하여 기증일자를 정하고 기증품 목록을 전달할 예정이다. 바자회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행사들도 계획 중이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며, '다른 이들로부터 나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의 부족한 살림살이가 채워지면 나의 부족한 마음도 채워진다. 바쁜 일상 중에도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천'의 정신을 보여준 사우들이 많다. 이런 사우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생각하며 더 많은 사우들이 이러한 나눔과 실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사보의 지면을 통해 이번 창원공장 '나눔♥자선 바자회'에 적극 동참해 주신 세아제강, 세아메탈, 세아네트웍스 그리고 협력사 임직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 한반도와 역사의 궤를 함께한 나라, 중국



지구상에서 4번째로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를 지닌 나라다. 최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뤄 GDP(국내 총 생산) 세계 2위의 위치에 올라있으며(2012년 기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Made In China'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분야를 막론하고 중국과의 교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중국과의 비즈니스 시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비즈니스 의상과 식사예절

중국에서 비즈니스 시의 옷차림은 남자의 경우 화이트 셔츠에 조금은 점잖은 넥타이, 짙은 남색 등 진한 색의 정장 슈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중국은 옷차림에 있어 보수적이다. 자칫 패셔너블한 차림은 경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자. 여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니 단색의 단정한 정장 슈트 또는 원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는 아직 여성의 사회 진출이 그리 반겨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물론 미팅이 끝난 저녁시간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비즈니스 시에 옷차림과 더불어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식사에 관한 에티켓인데, 중국에서는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정중한 접대라고 생각한다. 식사 중에는 가급적 사업 얘기를 피하고 간간이 음식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술을 즐긴다는 것을 알아두면 유리하다. 중국에서 식사 중 건배를 할 때는 보통 중국 술인 마오타이로 건배를 하는데, 너무 독할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물로 바꾸어 건배를 할 수도 있다. 건배사는 '우리의 오랜 유대 관계를 위하여', 또는 '회사 간의 우정을 위하여' 정도로 해두면 좋겠고, 잔을 부딪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들은 스프나 밥공기를 입에 갖다 대고 먹거나 식사 중 흡연 또는 침을 뱉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중국사람과 처음 식사를 한다면 이런 행동을 보고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자. 초대 식사의 경우에는 보통 저녁 6시 30분에서 2시간 가량 계속될 수 있으니, 다음 스케줄이 있다면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의 미팅과 협상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중요시 여긴다. 이미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소개받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술자리나 저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할 때 분위기를 편안하게 유도하고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농담이나 우스갯 소리로 시작하는 것은 금물. 이는 그들을 무시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 시에는 절대로 이중 부정어나 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국인들은 주관적으로 장단점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자사 또는 자사 제품을 자신의 관점에서 칭찬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가 판단해서 글로 옮긴 것을 미리 준비해 파일로 보여주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경쟁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발언도 피하도록 하자. 이 경우에도 제3자가 마련한 경쟁자측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이밖에 중국인들은 회의나 미팅 시에 간혹 '중국의 친구'라고 상대측을 부추기며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양보를 요구하며, 금액이 관련되었다면 낮은 가격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 고위 관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종종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데 이럴 때는 그냥 살며시 웃고 넘기는 센스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비즈니스 에티켓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미리 CEO 또는 상대측의 회사 간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혹시 중국 바이어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경우, 그 즉시 대처하도록 하고, 불참하게 될 경우 어떤 경우라도 불참석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문서나 전화로의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얼굴을 보고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잦은 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모든 일처리는 서로 마주보며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은 절대 '안돼'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 미팅이나 회의 중에 '안돼'라는 말을 써서 중국인들에게 적대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자. 만약에 '안돼'라는 대답을 부득이하게 해야할 경우 '좀 더 고려해봐야겠다' 또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등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눈썹을 움직이는 것은 '반대'의 의미이며, 언제 어디서나 직접적인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한국번디 가족들

직접 만든 다이어리에 희망찬
2013년을 꼭 채워요~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TV... 바쁜 현대인들에게 각종 전자제품들은 필요와 피곤, 중독의 언저리를 맴도는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다. 이 감자 같은 녀석들 덕분에 세상은 더 빨라지고 편리해졌지만 대신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들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는 날.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있었던 정겨움, 추억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날이다. 한국번디의 사우들이 다이어리를 만드는 현장에 <세아가족>이 함께 다녀왔다.



추억 만들기, 다이어리 만들기

통유리를 통해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홍대 앞 북아트 공방. 겨울임에도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오늘의 '다이어리 만들기'와 썩 잘 어울린다. 웅기종기 착한 학생들처럼 테이블 위에 모인 한국번디의 멤버들은 해외사업지원팀의 이찬 과장, 뇌극점 사우, 수출팀의 이해진 사우, 경영관리팀의 정진용 사우 등 총 네 명. 나이도 부서도 각각 다르지만 일찌감치 모여 이른 점심을 먹고 즐거운 수다삼매경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다이어리에 제작에 대한 기대감과 평일에 맞보는 한가로움이 네 사람을 한껏 들뜨게 한 듯 연방 웃음이 터진다.

업무시간에는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출퇴근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집에 가선 TV 삼매경에 빠지는 현대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네 사람인지라 다이어리 제작 경험은 '당연히' 모두 전무하다.

다이어리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들은 소감을 묻자 이찬 과장은 "업무를 벗어나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생각에 설렌다"며 미소를 지었고, 한국번디의 퀸이 아닐까 싶게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이해진 사우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만들 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이번만큼은 직접 만든 다이어리를 꼭 채워보고 싶다는 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출팀 이해진



연말이면 꼭 다이어리를 사서
열심히 쓰는 와이프에게
직접 만든 다이어리를 선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해외사업지원팀 뇌극점



뇌극점 사우는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는 와이프한테 직접 만든 다이어리를 선물하고 싶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는데 옆자리의 정진용 사우 역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쳐 순식간에 공방 분위기는 핑크빛으로 물든다.

어느 멋진 순간을 단번에 연애모드로 바꿔버리는 젊은 사우들의 사랑의 힘!

오늘 이들을 가르칠 강사는 김석류 씨. www.libroarte.co.kr를 운영하며 핸드메이드 북아트 전문가로 8년차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가이다. 그룹수업, 개인수업 등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해왔지만 정말 보기 드문 남자 수강생이 무려 '셋'이나 왔다면서 가르치는 내내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유부녀' 선생님이야.

테이블 위에 반제품 속지가 놓고 커버 재단을 위한 도구가 놓이자 수강생 네 명이 일순간 긴장한다. 뭘가를 손으로 만들어본 기억이 까마득하니 가위, 종이, 풀, 자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반가움 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 것.

그러나 이들이 누군가. 세계로 돌진하는 한국번디의 사원들이 아닌가. 김석류 강사의 차분한 설명이 시작되자 아까의 떠들썩한 분위기는 간데없이 초집중하는 분위기로 돌변하더니 이내 공방은 적막함 속에서 사각사각 선을 긋는 소리만이 가득하다. 나름 정교한(?) 커버 재단 작업이 끝나자 다음은 커버에 싹을 원단을 고르는 순서. 오늘 만들 다이어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단 고르기인지라 원단이 가득한 장 앞에 선 네 명의 고민이 말도 못한다. 원단이 쌓여있는 박스 앞에서 떠나질 못한 채 심사숙고하고 동료한테 의견을 묻고, 골랐던 원단을 다시 이리저리 바꾸는 등 멋진 다이어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에 모두가 안간힘을 쓴다.



결국 이찬 과장과 이해진 사우는 원색 포인트가 있는 강렬한 무늬로, 뇌극점 사우와 정진용 사우는 무채색에 가까운 무늬로 둘둘씩 약속이나 한 듯 골라냈다. 그 광경을 보니 “다이어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김 선생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듯하다.

한국번디스러운 정교함과 자부심으로

각자 예쁜 원단을 골라두고 자리로 돌아가 다시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원단을 자르고 폴로 붙이는 작업에 몰두하는 네 사람.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봐주던 선생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말없이 무섭게 집중하는 학생들은 처음 봤어요”라는 게 그 이유였다.

작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입을 연 이해진 사우가 “2mm, 5mm가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회사 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라며 직업병 신공을 발휘하는 동료들을 향해 슬쩍 미소를 지었다. 이해진 사우의 말을 듣고 유심히 지켜보니 정말이지 네 명 모두 하나도 대충 넘어가는 과정이 없다. 정교하게 측정하고 길이를 맞추고 가위질, 풀칠조차도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남이 없다. 이찬 과장은 옆에 천을 잔뜩 쌓아놓고 가위질 하는 품이 옷이라도 만드는 양 디자이너 선생님 포스를 팍팍 풍겨 여간 재밌지 않다. 매년 월초 2~3일만 다이어리를 쓴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던 정진용 사우의 작업이 시작되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다이어리를 만들기에만 집중했는데 뇌극점 사우와 함께 선생님의 “잘한다”는 칭찬을 들통 듣자 쑥스러운 미소를 보이기도. 커버가 다 씌워지자 비로소 다이어리가 제모습을 멋들어지게 뽐낸다. 이찬 과장은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키우지는 못하는 아내를 위해 특별히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천으로 커버를 씌웠다”며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날 이찬 사우는 유독 아들 자랑과 와이프 자랑에 여념이 없어 다른 사우들의 질투어린 눈총을 받기도 했다. 각자의 개성대로 만든 다이어리에 북마크 실을 달고 귀여운 악세사리를 덧붙이자 드디어 다이어리 완성!! 짜잔~!

모두가 뿌듯한 표정으로 서로의 다이어리를 평가하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면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와이프와 여자친구에게 다이어리를 선물하고 싶다는 뇌극점 사우와 정진용 사우에게 너도나도 “다이어리 안에 사랑의 메시지라도 써넣으라”고 권했지만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얼굴이 벌게진 채 “아우 그런 건...” 하면서 손 사례를 친다(하지만 나중에 혼자 몰래 썼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 손으로 만든 2013년

두 시간 반의 시간이 후딱 흘러간 다이어리 만들기. “항공고등학교를 나와서 기계조립에는 도가 텃지만 다이어리 제작은 처음이라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생각보다 어렵고 모든 작업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업이 살짝만 어긋나도 완성도가 떨어지니까요.” 해외사업지원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다운 이찬 과장의 분석이다. 같은 팀인 뇌극점 사우의 “한껏 즐기고 가는 느낌입니다. 와이프가 이 선물을 좋아하길 바라요”라는 소감과와는 사뭇 대조적이라 절로 웃음이 터진다. 작업하는 내내 진중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진용 사우는 “고등학교 때 미술시간을 제일 싫어했어요. 실기점수도 늘 안 좋았고 실기점수도 나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재능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일동 폭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이제 입사 1년차지만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작업에 도전해 본 것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 종종
만들어주세요~
경영관리팀 정진용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이해진 사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신랑과 와서 커플 다이어리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신혼 단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귀여운 새색시의 모습을 보여줬다. 작업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고 진지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었어요”라는 선생님의 칭찬에 아이처럼 좋아하는 네 사람의 모습에선 한국번디인들의 자부심도 살짝 엿보인다.

각자 만든 다이어리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내내 뿌듯함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던 한국번디 4인방. 2012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직접 만든 다이어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득 채워 넣을 꿈과 희망을 준비했으니 다가올 2013년 새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근사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세아제강

세아제강, '5억불 수출탑' 수상

세아제강이 12월 5일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5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CARBON PIPE, STAINLESS PIPE, 판재 등 각 부문별 수출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늘어나며 5억 5,374만 불을 기록했다. 세아제강은 2005년 동탑 산업훈장 및 2억불 수출탑, 2008년 3억불 수출탑, 그리고 2009년 은탑 산업훈장 및 4억불 수출탑 수상해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이어왔다.



포항공장,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11월 16일, 17일, 23일 이웃을 위한 선행에 발 벗고 나섰다. 사내에서 재배한 모과를 수확해 판매한 수익금과 사원들의 기부금으로 연탄을 구입하여 '사랑의 연탄 배달'을 시행한 것. 본 행사는 포항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공장은 봉사활동을 비롯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항공장, '혁신 소그룹 자랑대회' 실시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CHAMP21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혁신 소그룹 자랑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젊은 남녀 사원을 사회자로 선정하고, 진행 멘트와 방식에 변화를 주어 축제의 분위기로 고조시켰다.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사를 열심히 준비한 소그룹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세아제강, 설비보전기능사육성교육 실시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설비 전문 오퍼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자주보전기능사 양성교육을 한국 폴리텍VI대학 포항캠퍼스에서 실시했다. 6월 18일부터 실시된 교육은 총 52명의 이론 교육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 중 33명이 설비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실기를 포함한 최종 합격 결과는 12월 28일에 발표된다.

세아베스틸

전주비전대와 특별반 구성

세아베스틸이 10월 17일 전주비전대와 함께 맞춤형 특별과정 발대식을 가졌다. 신홍수 지원본부장, 전주 비전대 홍순직 총장을 비롯한 자동화기계과, 조선해양과 학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은 특별반 운영 계획, 참가학생 대표 선서, 그리고 '세아가 원하는 인재상'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전주비전대 특별반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협약에 따라 현장의 제조공정에 대한 이론, 실무, 모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R&D 시험동 준공, R&D 시험동 완공

세아베스틸이 10월 18일 R&D 시험동 공사를 완료했다. 약 5개월에 걸쳐 완공된 R&D 시험동은 약 1,309㎡(396평)의 규모로 1층은 분광분석실, 습식분석실, 교정실, C-Scan 등 다양한 분석 공간으로 채워졌으며, 2층은 현미경실, Gleeble실, SEM실, 그리고 VIP 회의실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VIP 회의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고객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을 갖췄다.

'전북기업환경협의회 대표자 회의' 개최

세아베스틸에서 10월 29일 '전북기업환경협의회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는 신홍수 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정읍 등 전북지역에 위치한 대표 회원사 공장장과 환경담당자 그리고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각사의 대표자들과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은 이날 주요 환경정책 관련 토론과 기업의 사업적·행정적 고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4차 아시아 단조총회' 주요 인사 방문

10월 17일 '제4차 아시아 단조총회' 주요 인사 약 80명이 군산공장을 방문했다. 한국단조공업 협동조합의 박권태 전무를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 단조 관련 업체의 주요 인사들은 군산공장의 대형단조 제품 소개를 듣고 대형단조공장을 견학했다. 이들은 특히, 공장 투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13,000t 프레스를 비롯한 단조 관련 설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대 신소재공학부와의 교류회 개최

세아베스틸이 11월 16일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및 학생 40여 명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단조 사무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류회는 홍보 비디오 시청-회사 현황에 대한 설명-특수강대형단조 공장 견학-선·후배 만남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아베스틸은 철강소재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하는 관계자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회사 이미지 제고에 힘쓸 전망이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초·중학교 도서 기증

11월 15일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이 충주시 주덕초등학교와 주덕중학교에 각각 도서 약 180권을 기증했다. 충주공장은 2009년부터 매년 충주지역 학교 도서기증을 비롯,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아특수강은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지역의 일자리 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 인재육성에도 적극 힘써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번디

평택공장, '제3회 SPM Global Conference' 개최

한국번디가 10월 15일~19일 'SPM Global Conference'를 개최했다.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 행사에는 중국 쑤저우와 칭다오,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17명의 현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소개, 개선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원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평택공장, 광주공장 등을 방문, TSW 라인, ALFOS 라인 등을 둘러보며 현장학습과 분과별 교육도 진행됐다.



광주공장, 독거노인 위한 이벤트 지원

한국번디 광주공장이 11월 9일 '한국번디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이벤트로 독거노인들과 함께 전남함평 국화축제 현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독거노인 30여 명과 함께 진행한 이벤트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광주공장 직원 10여 명은 참여한 독거노인들을 거들며 국화꽃 축제 관람을 도왔다. 한국번디 광주공장이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들은 직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세아에삽 대리점사장단산행개최

세아에삽이 10월 24일 2012년 하반기 대리점 사장단 등반행사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세아에삽만의 고유 문화로 자리 잡은 대리점 사장단 산행은 상호 협력관계 증진과 매출목표 달성 그리고 시장상황 공유를 통한 윈-윈 달성의 중심점이 되어왔다. 구미 금오산에서 시행된 이번 산행에는 대표이사 및 판매 부문 임직원 그리고 대리점 사장단 20여 명 등 총 45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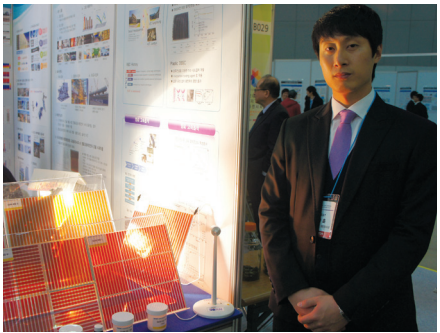


지역초등학교 도서 기부

세아에삽이 11월 20일 지역사랑, 학교사랑의 일환으로 창원 남양초등학교에 도서 약 140권을 기증했다. 세아에삽은 어린이들의 학습과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양도서를 지원하며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독서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세아에삽은 그 동안 세아해암 학술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창원, 양산, 장유 등 지역의 인근 초등학교에 교양도서를 기부해왔다.

세아이앤티 울산에너지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세아이앤티가 10월 26일 울산에너지고등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향후 세아이앤티의 엔지니어링(전기)과 태양전지 개발 분야의 인재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울산에너지고등학교는 최상위의 기술 중심 커리큘럼으로 Young Meister를 양성·배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 R&D 성과 전시회’ 참가

세아이앤티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2012 대한민국 에너지 R&D 성과 전시회’에 참가했다. 세아이앤티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초청 기업으로 선정, 각종 태양전지 소재와 염료 등을 전시했다. 이번에 전시된 제품들은 BIBP(박막형 태양전지)로 알려진 기존의 제품군에서 노출된 비효율적인 사이즈·유동성 문제를 해결했고, 향후 상용화 시, 고효율·저비용이라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로지스 취약계층 아동후원협약 체결

세아로지스가 11월 2일 포항CGV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포항시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아로지스는 본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끈끈한 연계 속에서 더 나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 위기가동 발굴, 아동대상서비스 상호연계, 그리고 지역 후원자 발굴 등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초등학교 도서 기부

세아에삽이 11월 20일 지역사랑, 학교사랑의 일환으로 창원 남양초등학교에 도서 약 140권을 기증했다. 세아에삽은 어린이들의 학습과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양도서를 지원하며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독서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세아에삽은 그 동안 세아해암 학술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창원, 양산, 장유 등 지역의 인근 초등학교에 교양도서를 기부해왔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이들의 코 작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 **결혼**
배상현 인재개발파트
- **출산**
김윤성 사업개발2파트

세아제강

- **입사**
이 슬 군산 업무지원팀
조운경 강관2 업무지원팀
김화진 포항 업무지원팀
- **결혼**
김상순 군산 생산2팀
이은석 본사 자금팀
강희준 포항 생산기술팀
박용규 포항 기술연구소
- **출산**
조영래 군산 생산2팀
이민호 군산 생산2팀
박성목 부산 대리점팀
전경수 본사 아연도강판영업팀
이찬호 포항 업무지원팀
- **조의**
박이환 포항 물류팀(부친)
박광진 포항 생산기술팀(장인)
박용규 포항 기술연구소(장인)
박기중 포항 생산1팀(장인)
황미라 부산 대리점팀(시부)

세아베스틸

- **결혼**
김재원 제강팀
강승철 제강팀
박철환 주단기술팀
박원식 제강설비팀
류영주 제품연구그룹
박정훈 설비지원팀

세아특수강

- **입사**
이수민 포항 생산팀
- **결혼**
권기범 충주2 생산팀
남기연 충주 품질보증팀
조정민 수출팀
- **출산**
김성민 포항 설비팀
전창연 충주 생산팀
서성탁 선재판매팀
최경환 수출팀
- **조의**
김명길 포항 품질보증실(조모)

한국번디

- **결혼**
김선용 평택 연구2팀
김성규 평택 연구3팀
김동준 광주 생산팀
정성주 평택 영업1팀
정은호 평택 연구3팀

세아E&T

- **입사**
이상훈 플랜트 생산팀
이의상 터보 기술팀
김예나 경영지원팀
이광열 터보 기술팀
- **결혼**
이정원 터보 기술팀
임신목터보 태양전지개발팀
동기훈 화공 영업팀
- **출산**
김태완 플랜트 기술영업4팀
박인옥 화공 생산1팀
- **조의**
이경신 터보생산팀(부친)

세아ESAB

- **입사**
김태홍 전략사업팀
- **결혼**
김영준 기초연구팀
김인영 혁신사무국
- **출산**
전희연 판매부문
박현주 생산팀

세아메탈

- **입사**
김기만 원주 생산설비팀
김경섭 원주 생산설비팀
원일섭 원주 생산설비팀
이봉기 원주 생산설비팀
엄창선 원주 생산설비팀
한대홍 원주 생산설비팀
현무호 원주 생산설비팀
김남규 원주 생산설비팀
김현욱 원주 생산설비팀
방병진 원주 품질경영팀
- **출산**
박창휘 창원 생산혁신팀
조진현 창원 품질개발팀

QUIZ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SeAH Reader's

KISNON 2012에 참가한 소식이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세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지사나 현지 공장 직원들의 소개도 다양하게 다루어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욱 경기 평택시 안중읍

〈어느 멋진 순간〉칼럼을 보자 아름다우신 세아의 여직원들이 요즘 가장 H0T한 트렌드인 드립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유쾌하고 흥미롭게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로서의 관계도 부러울 만큼 좋아 보여서 미소를 지으며 읽었습니다.

김승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조화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다름을 인정하자는 기사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와 닿았습니다. 회사 내 상황과 일반적인 상식, 정보를 골로루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채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지난 퀴즈 당첨자

전경욱 경기 평택 안중읍
김승희 경남 창원 성산구 웅남동
배재훈 경북 포항 남구 해도동
노재영 경북 대구 남구 봉덕3동
심영만 강원 원주 단계동
추민성 경북 경주 안강읍
서채진 전북 전주 효자동
박세은 서울 관악구 중앙동
황성윤 인천 남동구 만수동
강정희 서울 노원구 월계1동



〈지난호 퀴즈 정답〉

〈세아가족〉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
이송이 한국번디 품질경영팀(광주)
손은숙 세아메탈 경영지원실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기 세아이앤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당신의 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새로워질 것이다
빠르고 안락한 자동차와 고속철이 새로워질 것이다
더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누빌 것이며
더 놀라운 설비시스템과 IT기술 및 에너지산업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것이 세아가 종합 인프라기업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증거다

SěAH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베스틸·세아특수강·한국번디·세아ESAB
세아메탈·세아M&S·세아네트웍스·세아로지스·세아E&T

